

#친환경차 부품인증센터 #완성차공장

광주 빛그린산단, '미래 車산업 선도도시' 도약

친환경차 부품인증센터 7월 준공
광주시 주도 사회통합형 일자리
무인자율주행기술 개발 등 추진



광주 빛그린산업단지

광주 빛그린산업단지가 미래형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친환경차 부품인증센터, 무인자율주행 비대면 서비스 실용화, 완성차공장 등 친환경차와 무인자율주행까지를 아우르며 미래 자동차산업을 이끌 선도도시로 우뚝 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는 지역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와 연관된 전장부품 기술 등을 융합발전시키는 자동차 부품산업 구조고도화를 목표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3030억 원을 투입해 빛그린산단에 구축 중이다.

빛그린산단 연구용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906㎡ 규모의 179개 기술개발 장비를 갖춘 선도기술지원

센터와 창업보육과 해외마케팅, 인력 양성의 핵심기능을 수행할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889㎡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건립되고 있다.

친환경차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빛그린산단에 구축중인 전국 유일 친환경차 부품인증센터도 오는 7월 준공된다. 급증하는 인증 수요와 사후 관리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인증과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지상 2층 규모로 지난해 8월 착공, 총돌시험동, 충격시험동, 배터리시험동 등 3개 동을 구축 중에 있

다. 완공되면 곧바로 26종에 이르는 각종 인증·평가 장비가 2022년까지 구축된다.

노사 상생형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시킬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자동차공장도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9월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들어간다. 세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회통합형 노사상생 일자리로 23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자동차공장 건설이라는 기념비적 의미도 담고 있다.

오는 4월 준공과 함께 시운전에 들어가 오는 9월 양산체제에 들어간다. 당장은 내연SUV 경차를 생산하지만 자동차시장의 환경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친환경 자율주행차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빛그린산단에는 여기에 더해 무인자율주행 기술의 언택트 서비스 실용화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410억원을 투입해 헬스케어, 무인점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무인자율주행 셔틀활용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내용이다.

시는 세계 최초 실증을 통한 자율주행 언택트기술을 선점하고 조기 실용화로 관련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이 사업이 최종 선정돼 추진되면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기술 확보를 통해 경제사회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농협 전남지역본부

의료진 감사 응원 캠페인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범농협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연일 사투를 벌이며 헌신하는 의료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료진 감사 응원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의료진 감사 응원 캠페인'은 코로나19 국내 발생 1주기를 맞아 국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숨은 영웅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진행됐으며 캠페인 참가자들은 의료진 응원구호를 함께 외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이번 캠페인은 전남 관내 21개 농협 시·군지부 전 직원이 각 사무소에서 함께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전남=강성대 기자

남원시

코로나 누적 확진자 53명

남원시는 "코로나19에 1명이 추가 감염돼 누적확진자는 53명이다"고 21일 밝혔다.

남원 53번(전북 1125번)은 전북 1111번, 전북 1119번의 밀접접촉자로 전주소재 PC방에서 2월 15일부터 2월 17일까지 접촉했고 2월 20일 오전부터 증상이 발현돼 2월 20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21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의 이동동선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도 핸드폰 GPS 및 카드사용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확인된 동선에 대해서는 소독 조치 예정이다.

남원시 보건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 타 지역 방문 및 접촉으로 가족, 직장 등에 추가 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니 코로나19 유증상자는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받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강성대 기자

맞춤형 '드라이브인 교육' 부산시, 전국 최초 도입

디지털기 활용 개별 교육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 대상

부산시가 화물운수 종사자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 지난해 이어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인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드라이브인 교육은 스마트패드와 휴대전화 등 디지털기기를 활용해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는 비대면 집합교육으로 정보화 교육에 취약한 화물운수 종사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다.

부산시는 오는 4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시에 등록된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 4800여 명을 대상으로 드라이브인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시간은 4시간이며 교육은 부산교통문화연수원 내 주차장에서 이뤄진다.

신청은 부산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교육 일과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화물운수 종사자들은 매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방식이 집합교육에서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기 활용 등에 어려움을 겪어 교육 이수율이 낮은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해 부산시는 2개교(물류정책과·정보화담당관), 교통문화연수원, KT CS, 일반화물·개별·용달화물운송협회 등 7개 기관과 협업체 전국 최초로 컴퓨터 등 디지털기 활용 방안에 대한 화물운수 종사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으며 297명의 수료자를 양성한 바 있다.

부산시는 이번 드라이브인 교육이 코로나19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뿐 아니라 새로운 교육플랫폼을 통해 정보취약 계층인 화물운수 종사자들의 교육 이수율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상주시,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교통약자 편의증진

상주시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를 열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자로 사회복지법인 꿈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꿈마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게 됐다.

상주시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2014년 3대로 특별교통수단을 제공, 현재는 10대를 운영하고 있다.



시청소회의실

상주시 특별교통수단은 경상북도를 권역으로 운행되며 병원 진료 목적의 경우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5km 기준 기본요금 1100원이며 초과 1km당 2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공휴일도 사전예약을 통해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상주(경북)=김홍기 기자 g12136@

부산시 미세먼지 대응 위한 전기차 지원사업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부산시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의 경우 올 상반기 사업비는 858억원으로 전기자동차 3500대(승용차 2303대·화물차 1000대·버스 197대)에 대해 지원한다.

승용차는 지난해 1017대 지원에 그친 데에 비해 물량이 2303대로 대폭 증가했으며 화물차도 지난해 771대 지원에서 1000대로 확대해 택배·배달 차량

등 도심지역 생계형 차량도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300만 원을 화물차는 1대당 최대 260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6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인 최대 1300만 원을, 9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가 지원되며 9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부산=허의원 기자

영양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비대면 서면조사 실시

영양군은 거주불명등록제도의 정착성 제고와 관리강화를 위해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내달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의 특성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서면조사로 이뤄지며 주요 조사대상은 5년 이

상 장기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자로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에서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등 생존 근거를 찾기 어려운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계획이며 공고 기간 내 생존이 확인된 경우 재등록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광주 북구

남도음식 강좌 수강생 모집

광주광역시 북구는 오는 28일까지 '2021년 상반기 남도전통음식·광주대표음식' 강좌와 식(食)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남도 전통음식과 광주 대표음식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으며 3월부터 6월까지 운영된다.

남도전통음식 강좌는 ▲발효·저장 음식 ▲향토음식 ▲떡·한과 ▲웰빙한식 ▲생활요리 등 5개 과정이며 지역 토속음식을 비롯해 평소 배워보지 못한 내림음식에 대해 배울 수 있다.

광주대표음식 강좌는 ▲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광주대표음식 ▲광주 대표음식 푸드스타일링 과정으로 진행된다. 식문화프로그램은 ▲시와 음식 ▲노래와 음식 ▲나무와 음식 ▲차와 음식 ▲꽃과 음식 5개 과정으로 음식과 문학·예술·음악 등이 어우러진 내용으로 진행된다.

/광주=강성대 기자 ksd1008@